

CEO의 한 달

최근 정보보호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KISA. 특히 KISA 황중연 원장은 국제회의 및 정보보호 관련 세미나에서의 주제발표, 언론에서의 정보보호 킬럼 등을 통해 지난 4월 한 달간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사이버 안전, 국제사회가 힘 모읍시다!

: APEC-TEL 장관회의

지난 달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TEL(APEC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장관회의에서 황중연 원장이 APCE 회원국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사이버보안 활동의 대외협력 강화(Information Security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날 발표에서 황중연 원장은 '한국의 정보화 인프라 및 이용발달 현황',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 '정보보호 위협 및 대응현황', '글로벌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현황 및 중요성', '향후 국제협력 방향' 등을 강조했다.



정보보호 예산비중 'UP', 정보보호 인력도 'UP'

: 정보보호 정책토론회

황 원장은 지난 4월 17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정책방향'을 토대로 주제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제강연에서 그는 국내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IT인력 대비 약 4% 수준인 약 30,00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향후 정보보호 예산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8~10%대로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인력규모 또한 증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 법·제도, 관리적 측면 등 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대우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황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기업, 정보보호 안 하면 큰 손해'

: NES 2008-차세대 기업 보안 세미나

한편, 지난 4월 30일에는 기업 보안의 미래를 살펴보는 NES 2008-차세대 기업 보안 세미나에

참석한 황 원장은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기업정보보호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보안 위협 관리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기업이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